

#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RCEP 협상 동향

---

- 01 | 1. RCEP 개요 및 동향
- 04 | 2. 한국-RCEP 참여국 간 교역 현황

#### II. 주요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

- 07 | 1. 뉴질랜드
- 10 | 2. 라오스
- 12 | 3. 말레이시아
- 15 | 4. 베트남
- 20 | 5. 싱가포르
- 23 | 6. 인도네시아
- 26 | 7. 일본
- 29 | 8. 중국
- 35 | 9. 태국
- 37 | 10. 호주

####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 42 | 1. 주요 협상 쟁점 및 전망
- 43 | 2. RCEP 체결 시 우리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요 약

### □ RCEP 개요 및 추진 배경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미국, 중국 간 주도권 경쟁에 대한 ASEAN의 대응
  - WTO DDA 협상의 부진으로 2000년대 이후 양자 FTA가 급증하였으나, 근래 들어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
  - 미국 주도의 TPP, 중국 주도의 중화권 FTA 및 한·중·일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지역내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
  - ASEAN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RCEP 논의 주도

### □ RCEP 체결 시 우리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투자진출 확대 및 진출기업 간 유기적 협력관계 창출
  - 동남아 주요국을 생산기지로 하여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 및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 투자 진출 필요
  - 투자진출기업 간 유기적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
- RCEP 회원국별 주력산업에 대한 협력시장 창출
  -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RCEP 회원국 대상 현지 주력산업에 대한 개발정책과 표준을 만들어주는 ‘산업파트너링’을 제안하며 산업단위의 협력과 진출전략 추진
- 최대 수혜업종으로 전망되는 섬유산업 관련 전략적 대응책 마련
  -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하여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대응 철저
  - 베트남 내 한국섬유공단 조성 추진을 통한 우리 진출기업의 상생협력체계 마련 및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 공동기술 개발 등이 필요

## □ 각국의 RCEP 참가 목적 및 전략

국 가	목 적	전 략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시장인 동아시아-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유대를 다지는 동시에, 해당 시장으로의 비즈니스 진출 가속화를 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체결한 양자 FTA의 보완</li> <li>- TPP와 RCEP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함.</li> </ul>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회원국으로서 ASEAN+6 선언에 따라 자동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C 역내 협정 및 기존 FTA 협정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준비</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CEP을 활용해 말레이시아의 주요 무역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 및 ASEAN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목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의 해외사업 확장기회로 RCEP을 활용하고자 함.</li> <li>- 기존 체결된 ASEAN+1 FTA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추진</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회원국으로서 RCEP에 자동적으로 참여</li> <li>- 다자간 무역거래 촉진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및 경제성장을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수혜산업으로 주목받는 베트남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li> <li>- 전자, 전기 제조 등 하이테크 분야 중점 육성계획</li> <li>- 국영기업 민영화 등 투명한 정부 시스템 개혁</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 기대</li> <li>- 일관된 비관세 및 경제자유도가 높은 정책을 유지해온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과 부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관세장벽 타파, 표준화, 통관 과정 일원화를 통한 통합된 시장 확대 추구</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추진을 적극 제안, 현재 RCEP 무역협상위원회 의장국</li> <li>- RCEP 체결로 2025년까지 1% 경제성장을 증가할 것으로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li> <li>- 인니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 산업 및 민감 품목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활용하기 위함.</li> <li>- ASEAN과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 견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메가 FTA 전략 추진 중</li> <li>- TPP와 RCEP 등 2대 광역 FTA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FTAAP를 구축하고자 함.</li> <li>- 무역투자 원활화와 경제협력에 큰 비중</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CEP 참여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고, 중국 대외무역에서 RCEP 참여국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li> <li>- 중국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AP 로드맵 채택을 적극 추진하여 RCEP 참여는 아태지역일체화 형성을 추진하는 전략적 일환으로 분석</li> <li>-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견제하는 FTA 전략</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 도모</li> <li>- RCEP 국가가 태국의 주요한 수출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및 서비스부문의 교역과 투자부문에 중점을 두고 협상 중</li> <li>- 무역협상국은 여러 산업 대표들과 미팅을 통해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주요 무역품목인 농축산 제품의 약 60%가 RCEP참여국에 수출되고 있음.</li> <li>- RCEP 참여국을 자국 제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원료 공급과 고품질의 공산품 수입처로 보고 저렴한 부분품이나 완성품 수입을 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CEP 참여국으로부터 공산품 가격 인하, 자국 낙농품 및 식품 수출기회 확대, 자국의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상품 교역 확대를 모색</li> </ul>



## RCEP 협상 동향

### 1.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요 및 동향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 개요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 역내 국가 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의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

#### □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논의 활성화
  - WTO DDA 협상의 부진으로 2000년대 이후 양자 FTA가 급증하였으나, 근래 들어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
-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미국, 중국 간 주도권 경쟁에 대한 ASEAN의 대응
  - 미국 주도의 TPP, 중국 주도의 중화권 FTA(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한·중·일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
  - ASEAN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RCEP 논의 주도

#### □ 추진 필요성

-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기반 구축
  - RCEP 참여국에 한국의 제 1, 2,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RCEP 체결 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보 가능

-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효용 극대화
  - 역내 국가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하여 양자 FTA 체결 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 최소화
  - 비관세 장벽 등 장애 요인,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등을 다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활용도 제고
  - 역내 생산 공급망이 발달한 아시아 지역의 특성 상 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RCEP 추진 필요
-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
  - 초기 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 증대 모색
  - 역내 국가 간 경쟁구도, 정치적 대립의 완화·해결 방안으로 RCEP 활용

## □ 협상 동향

- ‘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
- ‘13년 협상 개시 및 ‘15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설정
- ‘13.5월 제1차 협상 이후 6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장관회의 개최

### 〈RCEP 협상 동향〉

날 짜	차 수	주요 내용
2013.5.9.~13	제1차 공식 협상 (브루나이)	- 협상 메커니즘 합의 * 무역협상위원회(TNC) 및 3개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작업반 설치
2013.8.19	제1차 장관회의 (브루나이)	
2013.9.23.~27	제2차 공식 협상 (호주)	- 상품 양허방식 및 협상 범위 논의
2014.1.20.~24	제3차 공식 협상 (말레이시아)	- 4개 작업반(경쟁, 분쟁해결, 지재권, 협력) 추가 설치 합의
2014.3.31.~4.4	제4차 공식 협상 (중국)	- 상품 양허방식 및 협상 범위 논의
2014.6.21.~27	제5차 공식 협상 (싱가포르)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목표 논의
2014.8.27.	제2차 장관회의 (미얀마)	
2014.12.1.~12.5	제6차 공식 협상 (인도)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규범·협력 분야 주요 요소 논의

- 제6차 공식 협상 주요 논의 내용(12.1~5)
  - '14.12.1~5일 5일간 인도 그레이트 노이다에서 RCEP 제 6차 협상 개최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 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에 대해 논의
  - (서비스·투자) 시장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논의
  - (경쟁·지재권·경협·법률)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 진행
  - 그 외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
- 차기 회의(제7차 RCEP 공식협상)는 '15.2.9~13 5일간 태국에서 개최예정

## □ 주요 쟁점

- 무역자유화율
  - (일본, 아세안) 8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로 철폐하는 안 제시
  - (인도, 중국, 한국) 무역자유화율을 40%로 하자는 의향 견지
  - (호주, 뉴질랜드) 무역자유화율을 80% 이상으로 요구
- 협상범위 및 방식
  -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규범분야가 포함된 포괄적 FTA 추진 및 전 분야 일괄타결방식 선호
  - (중국, 인도) 상품 분야로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는 방식 선호

## □ RCEP의 경제적 효과

- RCEP 체결 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 모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 (실질 GDP) RCEP 발효 시 우리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

- (후생) RCEP 발효 시 우리의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양허 시나리오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실질GDP(%)	후생(억 달러)	실질GDP(%)	후생(억 달러)
낮은 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 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 수준	0.44	96.25	1.45	163.47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2. 한국-RCEP 참여국 간 교역 현황

### □ 한국과 RCEP 협정 참여국과의 FTA 추진 현황

- 한국은 RCEP 참여 16개국 중 12개국과 FTA 발효, 2개국과 FTA 서명/타결 완료, 1개국과 FTA 협상 진행 중
  - RCEP을 통한 기 체결 FTA 업그레이드, 비체결국과의 자유무역 증진 기대

#### 〈한국-RCEP 협정 참여국과의 FTA 추진 현황〉

	국 가
FTA 발효	ASEAN(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FTA 서명/타결	뉴질랜드, 중국
FTA 협상중	일본

□ RCEP 협정 참여국 간 교역 현황

- '13년 기준 한국의 對RCEP 참여국에 대한 교역액은 5,097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 (1조 75억 달러)의 약 47.41%를 차지

〈한국의 RCEP국가들과의 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 2013년 기준)

	수 출		수 입		무 역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전체	559,625	100.00%	515,585	100.00%	1,075,210	100.00%
뉴질랜드	1,491	0.27%	1,395	0.27%	2,886	0.27%
라오스	187	0.03%	12	0.00%	199	0.02%
말레이시아	8,588	1.53%	11,096	2.15%	19,684	1.83%
미얀마	705	0.13%	488	0.81%	1,193	0.11%
베트남	21,088	3.77%	7,175	1.39%	28,263	2.63%
브루나이	102	0.02%	1,935	0.38%	2,037	0.19%
싱가포르	22,289	3.98%	10,369	2.01%	32,658	3.04%
인도	11,376	2.03%	6,180	1.20%	17,556	1.63%
인도네시아	11,568	2.07%	13,190	2.56%	24,758	2.30%
일본	34,662	6.19%	60,029	11.64%	94,691	8.81%
중국	145,869	26.07%	83,053	16.11%	228,922	21.29%
캄보디아	615	0.11%	136	0.03%	751	0.07%
태국	8,072	1.44%	5,231	1.01%	13,303	1.24%
필리핀	8,783	1.57%	3,706	0.72%	12,489	1.16%
호주	9,563	1.71%	20,785	4.03%	30,348	2.82%
<b>對RCEP 참여국</b>	<b>284,958</b>	<b>50.92%</b>	<b>224,780</b>	<b>43.60%</b>	<b>509,738</b>	<b>47.41%</b>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13년 기준 각 RCEP 참여국의 對RCEP 참여국 교역 비중은 24.45%~91.71%로 평균 61.58%의 교역 비중을 차지

〈협정 참여국 간 교역 현황〉

(단위 : 명, 달러, %, 2013년 기준)

	인구 (백만)	GDP (십억)	총 교역액 (백만)	對RCEP참여국 교역액 (백만)	對RCEP 참여국 교역비중
한국	50.2	1,304.5	1,075,210	509,738	47.41%
뉴질랜드	4.5	181.6	79,236	46,897	59.19%
라오스	6.6	10.0	11,167	10,006	89.60%
말레이시아	29.9	312.4	434,510	274,806	63.25%
미얀마	61.7	56.4	30,866	28,308	91.71%
베트남	89.7	170.6	255,653	153,687	60.12%
브루나이	0.4	16.2	18,758	16,035	85.48%
싱가포르	5.4	295.7	785,241	421,408	53.67%
인도	1,243.3	1,870.7	783,077	191,439	24.45%
인도네시아	237.6	870.3	369,179	244,000	66.09%
일본	127.9	4,901.5	1,546,956	719,358	46.50%
중국	1,360.8	9,469.1	4,157,440	1,235,887	29.73%
캄보디아	14.7	15.7	18,460	16,712	90.53%
태국	68.2	387.2	474,516	266,778	56.22%
필리핀	97.5	272	121,992	67,914	55.67%
호주	23.3	1,505.3	509,609	334,742	65.69%

\* 수출입, GDP, 인구는 2013년 기준, 그중 인도네시아 인구수는 2010년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IMF, 각국 통계자료 등 종합

II

## 주요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1

### 뉴질랜드

#### □ 뉴질랜드의 RCEP 참여 전략

○ 참여 목적

- 뉴질랜드는 RCEP 참여를 통해 주요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은 동아시아-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유대를 다지는 동시에 동아시아-아세안 시장으로의 비즈니스 진출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RCEP에 참여
-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60%가 RCEP 참여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TPP 참여국으로의 수출에 비해 20%가 높은 수치임.

○ 참여 전략

- 뉴질랜드는 인도, 일본을 제외한 RCEP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RCEP 참여를 통해 기존의 FTA를 보완
- 또한, 일본과의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진행 중인 인도와의 FTA 역시 본격화하고자 함.
- 뉴질랜드는 비슷한 성격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RCEP과 동시에 진행 중임. 두 가지의 협정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얻으려는 전략

#### □ 뉴질랜드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NZ\$)

국가명	對뉴질랜드 FTA 유무	뉴질랜드 수입 (백만)	뉴질랜드 수출 (백만)
호주	○	6,136	9,120
아세안	○	7,448	4,791
중국	○	7,860	9,955
인도	△	400	699
한국	○	1,871	1,633
일본	-	2,846	2,829

\* ○ : FTA체결, △ : FTA협상중, - : FTA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주 : 2013년 기준 통계

\*\*\*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뉴질랜드는 RCEP 참여 주요국 대부분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쟁점사항은 많지 않은 상황임.
- 국가별 쟁점사항
  - (對 중국)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뉴질랜드는 미국 주도 TPP에서 소외된 중국이 TPP와 RCEP을 대결 양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국과 미국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입장
  - (對 호주) 뉴질랜드와는 이미 호주-아세안-뉴질랜드 FTA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교류 중에 있으며 RCEP은 이런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對 일본) 뉴질랜드 4위 교역국으로 RCEP 참여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이며 RCEP을 통해 對일본 낙농제품 수출확대 계획
  - (對 인도) 뉴질랜드 15번째 교역 파트너로 2010년 4월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7월 9차 협상을 끝으로 FTA 협상이 중단된 상황.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까지 양자간 FTA를 타결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RCEP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 중에 있음.

## □ 산업계 반응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낙농업) 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과 Fonterra는 뉴질랜드의 RCEP 참여 찬성. RCEP 참여국들은 뉴질랜드 낙농업 수출의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RCEP 참여가 남아있는 수출 장벽을 없애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특히, 인도 및 일본과의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원예) NZ Horticulture Industry는 무역논쟁해결, 과학적인 위생검역시스템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을 기대함.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뉴질랜드 진출 전략

- 뉴질랜드는 현재 한국과 FTA 타결국가로 2015년 초 발효예정임. 이는 RCEP 타결보다 우선될 것으로 예정되어 RCEP 보다는 양자간 FTA 효과가 클 것임.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제품과 자동차 등의 뉴질랜드 관세가 이미 0%이며 기타 품목역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RCEP 발효가 한국산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RCEP보다는 양자간 FTA 발효에 대비한 우리기업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
  - FTA, RCEP으로 인한 관세철폐의 효과가 미미하나 뉴-중 FTA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기존 중국산 수입제품과의 가격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2 라오스

### □ 라오스의 RCE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ASEAN 회원국으로서 ASEAN+6 선언에 따라 자동 참여

\* ASEAN 경제공동체가 2015년 1월 1일 출범예정이며, ASEAN과 +6가 체결한 FTA 협정이 있어 RCEP은 라오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함.

#### ○ 참여 전략

- RCEP이 라오스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바탕으로 협상안 마련

\* 무역수지 불균형, 시장개입 필요성 대두,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등을 연구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역내 협정 및 기존 FTA 협정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준비

### □ 라오스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달러)

국가명	對라오스 FTA 유무	라오스 수입 (백만)	라오스 수출 (백만)
태국	○	4,069	1,231
필리핀	○	1	0
말레이시아	○	25	1
싱가포르	○	29	5
인도네시아	○	6	7
브루나이	○	0	0
베트남	○	504	607
미얀마	○	0	0
캄보디아	○	6	7
대한민국	○	206	11
중국	○	1,893	928
일본	○	134	98
호주	○	42	51
뉴질랜드	○	1	2
인도	○	50	102

\* ○: FTA체결, △: FTA협상중 (ASEAN 역내 FTA 및 대 ASEAN FTA를 통해 라오스와 체결)

\*\* 자료원 : CIA, IMF(2013)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국가별 쟁점사항

- 무역적자 심화 방지를 위해 자체 산업육성 및 수출증진 방안 연구
- 중국과 농산물 교역 마찰 해소를 위한 협상안 구상

### ○ 산업별 쟁점사항

- 식품동식물검역규제(SPS) 마련과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공산품 수출입 규제 협상을 위한 산업기준 및 표준안 정비

### ○ 분야별 쟁점사항

- 상품 외 서비스(인력포함) 산업 및 투자 이동 자유화 시행에 따른 라오스 사회 충격저감 방안 연구 및 RCEP 협정안 반영 준비

## □ 산업계 반응

###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2015년 12월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예정에 따라 시장변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RCEP는 그것의 연장선으로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별다른 준비가 없음.

\* AEC 출범에 따라 역내 관세는 사라지고 인력 및 투자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ASEAN 국가들과의 무한 경쟁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라오스 산업계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 RCEP 협정 시행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라오스 진출 전략

### ○ 라오스 서비스 분야 투자진출

- 2차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제조·생산 분야의 투자진출이 다소 어려움.
-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라오스의 지정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산업 투자진출

### 3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의 RCE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2013년 RCEP 국가들과 말레이시아의 총 무역은 약 269억달러로 말레이시아의 총 무역의 63.3 %를 차지하고 있음.
- RCEP 활용해 아시아의 주요 무역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세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참여 전략

- 통상산업부(MITI)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역 촉진과 말레이시아 기업인들 해외사업 확장기회로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RCEP 협상은 기존 체결된 ASEAN+1 FTA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추진 중임
- 말레이시아가 ASEAN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2015년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임.

□ 말레이시아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달러)

국가명	對말레이시아 FTA 유무	말레이시아 수입 (백만)	말레이시아 수출 (백만)
인도네시아	○	8,879	10,500
태국	○	12,281	12,674
싱가포르	○	25,504	31,912
베트남	○	6,031	4,227
필리핀	○	1,506	2,967
브루나이	○	323	824
캄보디아	○	194	235
미얀마	○	199	713
라오스	○	1	23
인도	○	5,212	8,175
중국	○	33,740	30,711
일본	○	17,899	25,328
호주	○	5,242	9,238
뉴질랜드	○	871	1,379
대한민국	○	9,725	8,292

\* ○ : FTA체결, △ : FTA협상중

\*\* 자료원 : WTA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산업별 쟁점사항

- 발효된 기존 FTA 개선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인건비 격차 때문에 중국과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편임.
- 역내에서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석유/가스 부문이나, 자동차, 팜오일 및 전자부품 등의 산업에서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임.

## □ 산업계 반응

###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석유 및 가스) 말레이시아가 석유가스 부문에서 동남아 선도국이므로 RCEP을 통한 역내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기술과 인력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좀 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공존함.
- (자동차) 다양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북미지역의 NAFTA처럼 동남아와 주변의 주요국을 연결할 RCEP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대처해 갈 것인가가 관건임.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 전략

### ○ 진출기업 간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창출

- 한국은 이미 RCEP 참여국들에 고르게 진출해 있는 상황이므로, 투자진출기업 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
- 중국, 인도 등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진출 시 말레이시아를 테스트베드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채널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

### ○ RCEP 발효에 대비 사전에 역내 브랜드마케팅 집중

- RCEP으로 창출되는 거대시장에 대비해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마케팅을 적극 지원 필요

### ○ RCEP 회원국별 주력산업에 대한 산업단위의 협력시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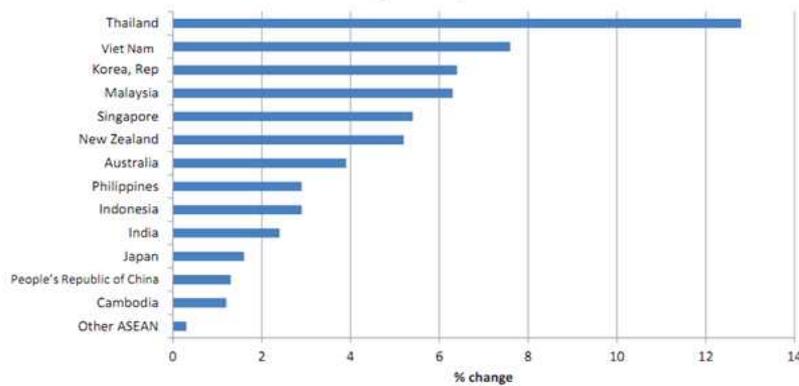
- RCEP 회원국들이 주로 중·후진국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입장이므로 현지 주력산업에 대한 개발정책과 표준을 만들어주는 '산업파트너링'을 제안하면서 산업단위의 협력과 진출전략 추진.

## 4 베트남

### □ 베트남의 RCE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더불어 베트남이 참여하는 주요 협정 중 하나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베트남 총 수출액(1,322억불)의 44%, 총 수입액(1,321억불)의 73%를 RCEP 참여국으로부터 집계된 것으로 조사됨.
- RCEP을 통하여 베트남은 다자간 무역거래 촉진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와 다양화,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확대, 선진국의 기술지원혜택 등의 이익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경제구조 개혁,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됨.
- RCEP 체결 시, 베트남은 2017년까지 7.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 참여 전략

##### ① 최대 수혜산업으로 주목 받는 베트남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

- 베트남은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의류의 관세인하로 수출 경쟁력 확보 가능

- 한국을 포함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 섬유산업 부문에 투자를 검토 중이며, 특히 베트남의 취약 부문인 방직과 염색 가공 설비 부문에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일부 베트남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폐수처리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투자유치를 꺼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책마련 필요

## ② 전자, 전기 제조 등 하이테크 분야 중점 육성계획

- 베트남 정부는 전자, 전기 제조 등 하이테크 분야 중점 육성을 위하여 관련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전용공단 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책을 마련 중
- 하노이 인근 박닌, 타이응우엔, 하이퐁 지역의 경우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전자(한국), 캐논, 파나소닉, 후지제록스, 교세이라(일본), 노키아(핀란드), 폭스콘(대만) 등 글로벌 전자, 전기 업종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인프라도 함께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 중에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지역 발전 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전자, 전기 특화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동종분야의 베트남 로컬 부품, 소재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이행할 예정

## ③ 국영기업 민영화 등 투명한 정부 시스템 개혁

- 2010년부터 베트남 총리실 산하에 ‘행정개혁 위원회’를 두고 정부 행정 개혁을 추진, 특히 외국 투자기업이 겪는 행정수속 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기업법, 관세법 개정안을 2015년 1월1일 발효
- 동 개정안에는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환경 개선, 해외투자자들의 이익 증대 및 시장 경쟁법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실현한다는 계획

□ 베트남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달러)

국가명	對베트남 FTA 유무	베트남 수입 (백만)	베트남 수출 (백만)
ASEAN	○	25,917	27,789
중국	○	48,586	16,891
일본	○	10,550	14,233
한국	○	21,087	7,175
호주	○	2,027	3,665
인도	○	5,987	2,826
뉴질랜드	○	391.48	376

\* ○ : FTA체결, △ : FTA협상중, - : FTA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자료원 : www.tradingeconomics.com; trademap.org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원산지 규정

- 미국, 일본 등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베트남은 TPP 및 일본-아세안 FTA 협약으로 최대 수혜분야 섬유부문에서 관세혜택을 기대
-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33% 이상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번 중국의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로 인해 베트남은 일본, 미국 등 섬유·의류 분야의 수출관세 혜택을 적용받아 베트남 섬유산업의 재도약 기대

○ 지적재산권

- 베트남은 외국의 선진 기술에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가짜 상품이 범람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적용될 경우 베트남 기업은 기술 비용을 원천기술보유 다국적 기업에 지급해야 하고 이는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베트남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 □ 산업계 반응

### ○ 긍정적인 입장

- 베트남은 RCEP 뿐 아니라 향후 TPP, 한국, EU,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다자간 FTA 체결을 통하여 수출·투자 증진 및 베트남 경제 활성화 기대
-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동차, 반도체, 원자력 등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기대
- 베트남 정부는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경제적 효과가 가장 높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투자유치정책을 검토할 것임을 표명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이미 3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본이 베트남 섬유산업으로 유입됐으며, 향후 약 10억 달러의 투자자본이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고 발표
- 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 및 공기업의 방만 경영 척결 뿐 아니라, 법령, 행정시스템 등에 대한 빠른 정부의 개혁 기대

### ○ 그 밖의 입장

- 베트남 내수시장 쟁탈을 위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 현지기업의 생존권이 위협
- FTA 조항을 이해하고 기회로 삼는 베트남 기업의 수는 적은 실정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적절한 사업전략 준비, 브랜드 창출, 유통 시스템 구축, 수출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및 생산부문에서의 개혁 필요
- 특히 재화 및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표준기술규정, 식품동식물검역규제 등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대비필요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

### ○ 최대 수혜업종 섬유산업,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전략대체

- RCEP 뿐 아니라 TPP, 베트남-EU FTA, 베트남-한국 FTA, 베트남-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FTA 등 다중의 FTA 효과가 기대됨.
- 특히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다중 FTA로 인한 베트남 특수 최대 수혜업종으로 지목되면서 한국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베트남은 아직 섬유 직물 생산 기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RCEP, TPP가 체결되면 한국 섬유업계는 베트남 내 생산설비를 확충을 하여 미국 수출 증가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 필요
-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하여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대응을 철저
- 베트남 내 한국섬유공단 조성 추진을 통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상생협력 체계 마련 뿐 아니라 베트남 TRI(베트남 섬유소재 전문 연구기관)연구소와 염색가공 기술개발을 비롯한 섬유생산의 전반적 분야에 걸쳐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 등 한-베트남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우리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전략 모색 필요**

-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등 총 70억불 이상의 투자와 더불어 관련 중소 협력업체 50여개 이상이 투자를 진행 중에 있음
- 우리 진출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 동반 진출 노력 확대, 과당경쟁 자제 및 시너지 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기반 마련 필요
- 또한 베트남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M&A등을 통하여 한-베트남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 및 베트남 시장의 선점을 통한 한국 기업들의 입지 강화 필요.

## 5 싱가포르

### □ 싱가포르의 RCE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TPP와 다르게 중국과 ASEAN이 주도하되 ASEAN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만큼, 일관된 비관세 및 경제자유도가 높은 정책을 유지해온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여 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함.
- 일차적으로 ASEAN 주도의 자유 무역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TPP와도 병행하여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아-태 지역에서의 통합된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해, 싱가포르에도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 참여 전략

-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 양 협상에 중복 참가하고 있는 7개 국가 중 하나로, 협상 타결을 통해 무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소형 국가의 한계 극복, 안정되고 법제화된 통합 지역 구축을 통해 서비스·투자 부문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긴 하지만, AEC구축과도 병행 진행하며, 얽히고설킨 지역 내 비관세장벽 타파, 표준화, 통관 과정 일원화를 통해 통합된 시장의 확대 추구

## □ 싱가포르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달러)

국가명	對싱가포르 FTA 유무	싱가포르 수입 (백만)	싱가포르 수출 (백만)
중국	○	43,692.4	48,365.1
말레이시아	○	40,839.3	49,924.6
한국	○	24,051.0	16,629.0
인도네시아	○	19,218.8	40,564.9
일본	○	20,391.8	17,629.2
태국	○	9,281.8	15,177.6
인도	○	9,120.3	11,228.0
호주	○	4,153.4	15,764.0
베트남	○	3,058.5	10,869.7
필리핀	○	5,087.8	6,698.8
뉴질랜드	○	849.0	1,876.5
미얀마	○	178.9	2,248.0
브루나이	○	55.3	2,206.4
캄보디아	○	181.5	1,107.8
라오스	○	5.7	26.3
계		180,165.5	240,315.9

\* ○ : FTA체결, △ : FTA협상중

\*\* 자료원 : WTA(2013)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국가별 쟁점사항

- 싱가포르의 경우 자유 무역 협정을 추구하는 데에다, 모든 참여 국가와 양자간, ASEAN 내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은 없음.
- RCEP의 다자 일괄 타결적인 성격과 한국, 중국, 일본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기타 국가들 간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2015년 연말 협상 타결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 산업별 쟁점사항

- 주로 중계 무역을 하므로 지역 내 원산지 결정 규정 통합과 공급 사슬 체계 편입을 통해 무역의 흐름 자체를 증진시키고자 함.
- 100개 이상의 외국 은행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자 인프라 개발 투자 자본의 허브인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고자 함. 동시에 파생 상품과 특수 보험 영역의 허브화도 꾀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자동차 제조, 섬유 산업, 농업 등과 관련 싱가포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음.

## ○ 분야별 쟁점사항

- 모든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도 및 법규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의 입장에서 RCEP 협상과 관련된 특별한 쟁점은 없으며, ASEAN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 대해서 원산지 규정, 동등 대우 규정, 서비스 자유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서 더욱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음.

## □ 산업계 반응

##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높은 수준의 FTA 기준에 맞춰져 있는 관계로 RCEP과 관련된 특이할 만한 반응은 없으나, 금융 및 인프라 개발 쪽에서는 RCEP 타결을 통한 지역 통합이 시장의 확장과 신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전략

## ○ 지금까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기본적으로 무관세 및 자유 무역 정책을 펼치는 싱가포르인데다가, 이미 체결되고 발효된 한국-싱가포르, 한국-ASEAN FTA로 인해 대부분의 장벽이 낮춰진 상황임.
- 또한, 시장 및 지역 통합 관점에서 RCEP 협상이 진행되는 성향이 있는 관계로 싱가포르를 통한 타지역 진출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6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의 RCE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인니는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으로 아세안 경제통합에 적극적인 리더십 보여줬음.
  - \* '11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인니, RCEP 추진을 적극 제안, 현재 RCEP 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 Committee) 의장국임.
- 인니 정부, RCEP 체결로 2025년까지 1% 경제성장률 증가할 것으로 기대
  - \* 15개국 협상 참여국 인니 수출의 60%, 수입의 58% 차지

#### ○ 참여 전략

-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시장 개방
  - \* 인니 무역부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 산업 파악, 국내 산업이 취약한 기계 부품, 산업재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힘.

### □ 인도네시아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달러)

국가명	對인도네시아 FTA 유무	인도네시아 수입 (백만)	인도네시아 수출 (백만)
말레이시아	○	10,666.61	13,322.53
필리핀	○	3,816.96	777.38
싱가포르	○	16,686.28	25,581.52
태국	○	6,061.87	10,703.10
브루나이	○	122.70	645.39
베트남	○	2,400.88	2,722.64
라오스	○	5.85	7.55
미얀마	○	556.38	73.15
캄보디아	○	312.46	17.85
중국	○	22,601.49	29,849.47
일본	○	27,086.26	19,284.59
한국	○	11,422.48	11,592.63
인도	○	13,031.30	3,963.98
호주	○	4,370.482	5,038.17
뉴질랜드	○	469.51	805.99

\* ○ : FTA체결, △ : FTA협상중

\*\* 자료원 : WTA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지난 10월말 출범한 신정부는 RCEP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시장 추가 개방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
  - FTA 체결로 국내 산업이 피해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지난 10월말 새로 취임한 고벨 무역부 장관은 FTA 추진은 당분간 보류하고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힘.
  - 지난 정부는 올해 4월 특정품목 가격, 수출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무역법, 신산업법 등 자국 산업 보호조항이 포함된 법률을 법제화했음.

## □ 산업계 반응

- RCEP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 이는 일반 국민계층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체들에게도 해당
- 기업들은 RCEP보다 2015년 말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국내 산업이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가 더 큼.
  - 인니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문의 단지 30%만이 AEC 단일 경제권에서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
  - AEC 단일 경제체제하에 대비하여 경쟁력이 부재한 산업부문(은행업, 금융 등의 서비스분야), 노동인구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

- RCEP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가 가능해지면 중간재 수출이 많고 아세안 지역에 투자를 활발히 하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임.
  - 한국의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로 일본(59%)보다 높은 수치인 반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고 최종재 수출 비중이 높음.

- 한국 투자의 42%(2013년 말 기준) RCEP 지역에 이뤄지고 있는데 RCEP을 통해 누적원산지 기준 등의 동일한 규범이 적용될 경우 한국기업의 활용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경제산업연구소 (RIETI) 등의 연구에 의하면 RCEP의 GDP 효과는 한국이 0.29%~1.15%로 16개국 가운데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드러남.

## 7 | 일본

### □ 일본의 RCE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RCEP은 글로벌 생산거점인 중국, 동남아, 인도가 참여하여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광역 FTA로, 일본기업 서플라이 체인 구축 위해 중요.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효율적인 국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 \* (JETRO) RCEP 참가국 진출 일본계 기업이 RCEP 국가에서 부품 조달 비율은 90% 상회
- ASEAN과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 견제

#### ○ 참여 전략

- 일본은 그간 다자주의를 지향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FTA 협상에도 적극 참여. 특히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메가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TPP와 RCEP 등 2대 광역 FTA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FTAAP를 구축하고자 하며, FTAAP 실현에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것으로 보임.
- 제도구축적 측면보다는 무역투자의 원활화와 경제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

□ 일본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달러)

국가명	對(조사국) FTA유무	(조사국) 수입 (백만)	(조사국) 수출 (백만)
뉴질랜드	-	2,694	2,190
말레이시아	○	29,778	17,697
베트남	○	14,213	10,525
싱가포르	○	7,463	20,968
호주	○	50,989	16,959
인도네시아	○	28,849	17,037
중국	△	180,840	129,092
필리핀	○	9,214	9,684
태국	○	22,033	35,999
라오스	○	107	121
미얀마	○	756	1,056
인도	○	7,081	8,617
캄보디아	○	582	209
한국	△	35,852	56,523

\* ○ : FTA체결, △ : FTA협상중, - : FTA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자료원 : WTA

\*\*\* 일본은 ASEAN과의 EPA를 체결했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는 별도의 EPA를 체결하고 있음.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국가별 쟁점사항

- (對미국) 일본의 적극적 농업보호 조치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관련 업계 반대가 심한 반면, 미국은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
- (對인도, 중국,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80% 이상)의 자유화율을 요구하는 반면 인도, 중국, 한국은 낮은 수준(40%)의 자유화율을 요구
  - \* 뉴질랜드는 자유화율을 9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요구. 반면 중국과 인도는 낮은 수준 제시. 일본은 “우선 60%, 10년 안에 90%” 요구
- (對인도) 모디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자유화율을 40%로 주장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인도 분리”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참가국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 분야별 쟁점사항

- 일본은 2014년 3월 개최된 제 4차 회의에서 자유화율에 대해 “우선 60%, 10년 안에 90%”라는 방침을 제안하였으나, 중국이 난색 표명
- 포괄적 FTA이나, 참가국간 경제적 격차에 따른 온도차로 예외를 인정하는 낮은 수준의 협정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 산업계 반응

##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농업) 일본은 적극적 농업보호 조치가 전략적 FTA 정책 추진에 족쇄로 작용. 일본 농업계는 TPP 및 RCEP에 의한 개방을 반대. 일본 농민 조직인 농민운동 전국연합회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함.

## \* 농민운동전국연합회의 반대의사 표명

- TPP 참가 절대 반대. 일호, 일중한, RCEP 등 농업에 중대한 타격이 되는 FTA 반대
- 식량주권 확립 필요
- 쌀을 비롯한 주된 농산물의 생산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정책 실시

- (제조업) 신성장 시장인 동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가 가능하여 전반적으로 환영

(사례 1) RCEP을 통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면 ASEAN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부자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인도에 진출한 일본 어패럴 기업 B사는 “중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ASEAN에서 가공하여 인도로 수출하는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조달 및 수출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RCEP 기대감 표명

(사례 2) 인도에서 건설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일본 기업 C사는 부자재 조달 면에서 RCEP을 기대. 동 사는 태국에서 부자재·설비를 인도로 수입할 때 AIFTA를 활용하고 있으나 부자재나 설비의 종류에 따라서는 태국에서 제조 시 들어가는 일본제 부품 때문에 AI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품목이 많다고 함. 일본산이지만 태국산과 같이 부가가치 인정이 되면 아세안에서 인도로 수입되는 품목도 늘어나며 반대로 중국에서 조달한 부자재를 인도로 수입하여 제조/조립 후 ASEAN시장에 판매도 가능

## 8 중국

### □ 중국의 RCEP 참여 목적

- 중국과 RCEP 참여국 간 경제적 연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고 중국 대외무역에서 RCEP 참여국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
  - '13년 중국과 기타 RCEP 참여국(한,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ASEAN 등 15개 국)과의 수출입금액은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중국 대외무역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
    - \* '13년 중국 대외무역 총액은 4조 1600억 달러
- RCEP의 참여국이 모두 중국 주변국이고 경제적 관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RCEP 참여는 중국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로도 풀이
  - RCEP 참여는 중국 국내 경제발전의 독립을 보장
  -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쟁취하고 국제산업 시스템에서 중국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유리 (중국 상무부)
- RCEP 참여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발효되면 아-태 지역 세계 최대 규모의 광역 시장 탄생할 것으로 기대
  - RCEP이 성사되면 경제규모 20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시장이 탄생
  -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 등의 연구에 따르면 RCEP 성사 후 중국 GDP에 대한 상승효과는 0.15~0.22%에 달할 것으로 추정

### □ 중국의 RCEP 참여 전략

- '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회의에서 FTAAP 로드맵 채택을 적극 추진하여 RCEP 참여는 아-태지역일체화 형성을 추진하는 전략적 일환으로 분석
-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견제하는 FTA 전략
  - 중국 상무부는 RCEP 성사 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아-태지역과 세계에 대한 GDP 효과는 TPP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
    - \* RCEP의 아태지역과 세계에 대한 GDP 효과가 2.1%, 1.4% 인데 반해 TPP는 1.2%와 0.6%에 그친다고 발표 (2014년 8월 29일, 중국 상무부 발표자료)

## □ 중국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달러)

국가명	對중국 FTA 유무	(중국) 수입 (백만)	(중국) 수출 (백만)
한국	△ (실질적 협상종료)	179,359	90,653
뉴질랜드	○	8,249	4,121
호주	△ (협상 종료 선언)	91,426	37,460
일본	△	159,091	148,674
인도	△	16,708	48,532
말레이시아	○ (중-ASEAN FTA) 업그레이드 판에 대한 협상 진행 중	58,877	45,849
베트남		16,361	48,544
싱가포르		31,473	45,375
인도네시아		31,391	36,887
필리핀		17,513	19,797
태국		37,213	32,575
라오스		990	1,718
미얀마		2,786	7,348
캄보디아		347	3,394
브루나이		87	1,703

\* ○ : FTA체결, △ : FTA협상중 (2014년 11월 30일 기준)

\*\* 2013년 기준, 중국과 FTA 타결상황은 2014년 11월 30일 기준임.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IMF, 각국 통계자료, JETRO 등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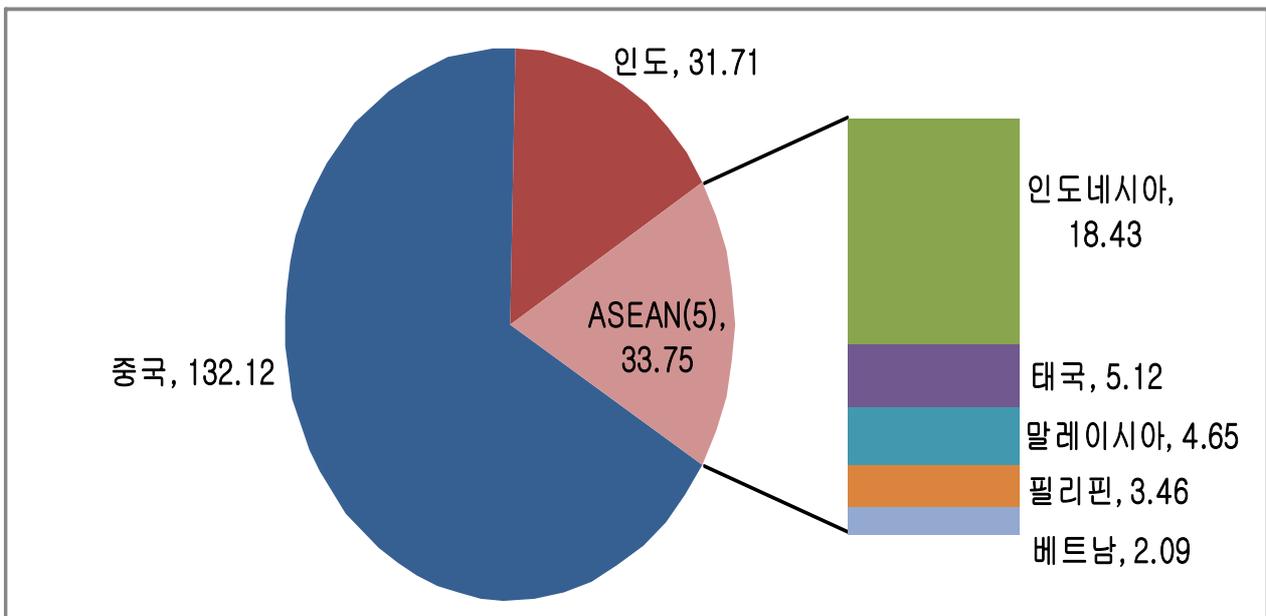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對 미국) 중국이 RCEP 추진을 적극 촉구하는데에는 미국 주도하의 TPP에 맞서 아-태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 (일본 FRI 경제연구소)
  - 중국은 RCEP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전략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네트워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對 인도) 아시아 신흥대국 인도는 RCEP 협상에서 중국 정부의 견제대상
  -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아-태지역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는데서 다가오는 위기감으로부터 비롯됨.

- IMF 전망에 따르면 '17년 아시아 신흥국 GDP 규모는 중국이 13 조 2120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지만 인도의 부상에 대해 경각성을 늦출 수 없음.
- \* 인도의 '17년 GDP 규모는 3조 1710억 달러, 중국과는 견줄 수 없는 규모이지만 ASEAN 5개국의 합계인 3조 3750억 달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
- '13년 7월, 인도가 RCEP 1차 협상에 참여하기 전까지 중국은 줄곧 반대를 표시해 왔는데 주요 원인은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와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의 참여가 중국의 외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홍콩 중소기업상망)

〈2017년 아시아 신흥국 GDP 규모〉

(단위: 천억 달러)



자료원: IMF

- (산업별) 참여국 간 다양한 발전수준으로 민감 품목, 보호 품목이 달라 갈등 존재
- 중국은 농산품 시장의 개방과 자국 제조업의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에게 농산품은 민감 품목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야별) 다자협력인 만큼 각자의 이견이 서로 좁혀지기 어려운 현재, 기존의 FTA와 RCEP을 어떻게 통합시키는가도 문제로 대두
  - (일반상품) ASEAN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각각 2018년, 2026년, 2022년, 2025년 모든 일반 상품의 제로관세 실현에 합의를 보았음.
  - (서비스) 서비스 분야의 개방정도는 중국의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영역 중 하나로 개중국은 모두 한, 일, 호주, 뉴질랜드보다 낮은 수준
    - \*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ASEAN에 33개 부분을 개방하였지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각각 85, 164, 85 및 116개 부분을 개방
  - (투자) 수준 높은 투자협정을 위해선 ‘설립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의 원칙에 합의를 보아야 하나 중국은 내국민대우에 있어서 설립 후에만 양허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 □ 산업계 반응

- RCEP 참여국과 FTA 체결상황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은 인도, 일본을 제외한 기타 참여국과 모두 양자, 다자 FTA를 타결
  - 아직 협상초기 단계에 있는 RCEP에 대하여 중국 산업계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광역 시장 형성이 참여국 모두에 충격이 있지만 중국은 경제 규모 등 원인으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
- 최근 중국 국내 과잉생산 해소와 대외투자를 결부하는 최적 투자처로 남미, ASEAN이 급부상
  - ‘13년 중국이 각 경제체에 대한 직접투자상황을 살펴보면 ASEAN은 홍콩 버금으로 중국의 직접대외투자가 많은 지역, 6.7%의 비중을 차지
  - ‘13년 중국이 ASEAN 10개국에 대한 투자량은 72.67억 달러, 전년대비 19.1% 증가, 투자유동액의 6.7%차지

〈2013년 중국 각 경제체에 대한 직접투자 상황〉

경제체	유동량			보존량	
	금액(억 달러)	전년대비(%)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홍콩	628.24	22.6	58.3	3770.9	57.1
ASEAN	72.67	19.1	6.7	356.7	5.4
EU	45.24	-26.1	4.2	401.0	6.1
미국	38.73	-4.3	3.6	219.0	3.3
호주	34.58	59.1	3.2	174.5	2.7
러시아	10.22	30.2	0.9	75.8	1.1
합계	829.68	17.7	76.9	4997.9	75.7

자료원: 2013 중국대외직접투자 통계공고(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채광, 도매, 제조, 에너지, 건축 등 산업에 집중
- 채광업과 도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이 17%
- 상기 산업들이 합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인건비 상승, 자원 결핍 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국내 기업에 보다 광활한 생산기지과 시장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13 중국의 對 ASEAN 투자〉

업종	투자금액 (억 달러)	비중(%)	지역
채광업	12.34	17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 등
도매업	12.34	17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제조업	11.89	16.4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 마
에너지산업	8.22	11.3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건축업	6.98	9.6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서비스업	6.21	8.5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농림수산업	5.43	7.5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금융업	5.42	7.5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자료원: 2013 중국대외직접투자 통계공고(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 ASEAN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RCEP 협상은 선진국을 상대로 하는 FTA 협상과 달리 다중적 역할 담당
- 예전 FTA 협상에서 제조업 등 산업에서 다소 방어 자세를 보였던 시기와 달리 RCEP 협상에서는 이익의 평형점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

- 다양한 경제체가 참여하는 협상이기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음.
- \* 서비스무역 분야에서의 개방수준도 GATS 및 중·ASEAN FTA보다 높이고 투자 분야는 '추진', '보호', '편리화'와 '자유화'를 주축으로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며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 중국 상무부는 RCEP 협상에서 적극 추진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현
  -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RCEP 협상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
    - \* 35년의 개혁개방 경험, 중국의 거대한 경제규모, 기업경쟁력, 자금력, 국제적 경쟁력의 제고를 뒷심으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를 적극 표현
  - 중국 리커창 총리는 '14년 4월 보아오(博鳌)포럼에서 중국이 RCEP에 적극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RCEP 성사 후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와 수출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러한 발전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핵심적인 기술력에 승부수를 두어야 함.
  - \* 현재 중국은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제조 후 최종재를 수출하는 '세계공장'의 역할을 담당
    - 대외투자 확대, 원부자재 수입, IT 산업의 발전 등으로 RCEP 성사 후 중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는 필연적 추세로 예상
    - 핵심기술력으로 RCEP 성사 후에도 중국, ASEAN 각국과의 무역에서 대체 불가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대외투자를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자금력과 우리 기업의 기술력으로 윈-윈하는 협력패턴을 발전시켜야 함.

## 9 태국

### □ 태국의 RCE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RCEP 참여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도모, 상품시장 무역에서 공급망이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을 기대
- RCEP 국가들은 고품질의 적당한 가격인 태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의 수가 늘고 있어 태국의 효율적인 수출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

#### ○ 참여 전략

- 태국 정부가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상품 및 서비스부문의 교역과 투자부문임
- 피해산업에 대한 태국 정부의 정확한 보호 대책은 사실상 현재까지 없으며 무역협상국은 여러 산업 대표들과 미팅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 태국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달러)

국가명	對태국 FTA 유무	태국 수입 (백만)	태국 수출 (백만)
ASEAN	○	41,798.18	59,309.46
호주	○	5,495.51	10,348.95
중국	○	37,727.17	27,232.73
인도	○	3,504.34	5,181.82
일본	○	41,083.00	22,235.26
한국	○	9,067.55	4,588.22
뉴질랜드	○	618.45	1,160.94

\* ○ : FTA체결, △ : FTA협상중

\*\* 자료원 : Minister of Commerce, Thailand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국가별 쟁점사항

- 실제 RCEP 실행 시, 기존 FTA와 상충되는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RCEP의 새로운 원산지 결정기준이 시장 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RCEP 발효는 경쟁력 있는 태국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

### ○ 산업별 쟁점사항

- 태국의 10가지 주요 수출 산업(자동차, 전자, 가전제품, 가공식품, 섬유 및 직물, 고무, 화학, 보석, 석유화학 및 철 등) 중 7개 산업(전자, 가공식품, 섬유 및 직물, 고무, 화학, 보석, 석유화학)은 RCEP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3개 산업(자동차, 가전제품, 철강)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 □ 산업계 반응

###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자동차 및 가전제품)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 범위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가 핵심으로 완전히 개방한다면 자동차 및 가전제품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간 교역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철강) 시장 개방은 태국 업체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나,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산업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태국 진출 전략

### ○ RCEP 활용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

- 이미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 시장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RCEP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철강 산업은 현지 업체 제소에 따라 빈번하게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번 협상 시 수입규제 완화 요구 필요
- 인증제도 관련하여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산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진출 지원이 필요

## 10 호주

### □ 호주의 RCE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기조를 반영하여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RCEP 역시 이러한 일환으로 2012년 11월부터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농축산 제품의 약 60%가 RCEP 참여국에게 수출되고 있어 호주 정부는 RCEP이 호주 무역증진을 위한 교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호주의 경우 RCEP 참여국을 제조업 경쟁국으로 보기 보다는 자국 제조업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한 원료 수급과 고품질의 공산품 수입처로 보고 저렴한 부분품이나 완성품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식 서비스 산업, 경제적, 기술적 협력, 투자진흥 등을 이끌어내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도구로 확대하는 것에 기본 목적으로 두고 있음.

#### ○ 참여 전략

- RCEP 참여 국가들과 호주의 쌍방 교역 비중은 60%(2013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호주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호주정부는 RCEP 참여를 통하여 참여국간의 무역장벽을 낮추며, 호주 수출업자 및 투자자의 참여국 시장접근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
- 호주는 RCEP 참여국들로부터 ① 공산품 가격 인하 ② 자국 낙농품 및 식품의 수출기회 확대 ③ 자국의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상품 교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아울러 ④ 호주 기업의 對RCEP 국가 투자에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에 집중하고 ⑤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포괄적이고 균등한 상호간의 이득을 이끌어 내려는 부수적인 전략도 내포하고 있음.

## □ 호주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호주달러)

국가명	對호주 FTA 유무	호주 수입 (백만)	호주 수출 (백만)
중국	○	47,150	94,655
인도	△	2,400	9,517
인도네시아	△	5,828	5,162
일본	○	18,914	47,501
대한민국	○	10,146	19,593
ASEAN	○	45,420	24,752

\* ○ : FTA체결, △ : FTA협상중

\*\* 자료원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산업별 쟁점사항

- 자동차, 철강, 화학, 플라스틱 제품의 높은 관세로 인해 호주 수출품들이 해당 시장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다고 봄. 철강이나 자동차와 같은 조건부 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품목은 여러 가지 제한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RCEP 참여국에서 요구하는 로컬 콘텐츠 규정(local content requirements) 역시 자유무역을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논의됨.
- 농산물에 대한 수입할당 이외에도 많은 제품에 임의적인 수입허가(discretionary import licensing)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함. 일부 참여국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해 공기업이 할당을 받고 있고 유제품, 밀, 보리, 설탕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국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또한 몇몇 RCEP 참여국들이 사전 수출 검역을 시행하여 호주 수출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점이 논의됨.

○ 분야별 쟁점사항

- 대부분의 RCEP 참여국에서 서비스 분야가 가장 강력하게 규제됨.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제한을 두며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한계가 있음. 이뿐만 아니라 호주의 법률, 기술, 건축, 회계와 같은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가 참여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허가 및 거주 요건,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어 비즈니스 운영 시 현지의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함.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정부 규정과 의사 결정의 투명성 부족은 많은 RCEP 참여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산업계 반응

○ 농축산업계

- WTO와 FTA 협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국의 자국 농축산물 보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무역 규정을 확고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궁극적으로는 RCEP을 통한 무관세 수출, 효율적인 허가조건 적용, 식품 기준 협조 강화에 따라 호주 시장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낙농업 협회

- 수출이 호주 낙농업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여전히 높은 관세율과 규정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해외 수출 기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시장 진입, 수출 보조금, 내수시장 지원 부분을 호주 낙농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
- 낙농업협회는 호주 정부의 RCEP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유 무역이 호주 낙농업 제품에 더욱 경쟁력을 키워줄 것임을 확신

○ 철강업계

-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 협정이 호주 철강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협적인 요소도 있다고 밝힘. 몇몇 참여국 정부에서 높은 비율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철강제품 무역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함.
- 호주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

## ○ 자동차업계

- 호주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포드(Ford), 홀덴(Holden), 토요타(Toyota)가 2017년까지 철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주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임. 참여국 중 호주의 수입량이 높은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가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한 대 당 평균 150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함.

## ○ 교육업계

- 호주의 교육업계에서는 RCEP을 통해 교육 서비스 및 호주 학위의 인지도를 강화시켜 참여국 지역 내에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더 많은 유학생을 호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호주 공정거래위원회

- 참여국 모두 호주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호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 RCEP 협정에 포함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정과 법규가 잘 지켜질 시에 지역 전체 시장 내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지역 경제 전체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함.

## □ RCEP 발효 시 우리기업의 호주 진출 전략

- 한국의 대표적인 對호주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낮아진 관세 장벽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호주의 높은 인건비와 생산단가로 인해 제조업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RCEP 발효 시 완제품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아시아 참여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음.
-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철강제품, 전자, 기계 등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시장 확대 방안이 필요

- 영화, 통신 사업도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이미 예전부터 호주 업체와 공동 투자 사업을 진행해온 사례가 있는 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임.
- 호주 측에서는 스마트시티를 한국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 꼽음. 호주 내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교육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두고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III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 주요 협상 쟁점 및 전망

## ○ 중국 주도의 RCEP vs 미국 주도의 TPP

- 중국은 RCEP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 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전략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네트워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RCEP 참여국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은 주요 교역 대상국이므로 TPP와 RCEP이 대결 양상을 띠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 필요

## ○ 참여국 간 경제적 개발 격차에 따른 갈등

- RCEP은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있으나, 참가국간 경제적 격차에 따라 예외 인정으로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국가별 민감 품목\*, 보호 품목이 상이하여 갈등 존재
- \*한국, 일본 : 농산품, 중국, 신흥국 : 제조업 등

## ○ 원산지 규정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RCEP 참여국 간 기 체결된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 적용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반면, RCEP은 표준화된 원산지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 RCEP이 발효될 경우 원산지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 무역자유화율 의견 차이로 교섭 난항

- 일본과 ASEAN이 8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 중국, 한국은 무역자유화율을 40%로 하자는 의향을 견지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음.
- 호주, 뉴질랜드는 80% 이상의 무역자유화율을 요구

## □ RCEP 체결 시 우리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투자진출 확대 및 진출기업 간 유기적 협력관계 창출
  - TPP, RCEP을 동시 추진 중인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생산기지로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 필요
  - RCEP 참여국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물류,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산업 투자 진출 지원
  - 한국은 이미 RCEP 참여국에 고르게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투자진출기업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
  - R&D, 조달, 생산, 유통, A/S 등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재배치 필요
- RCEP 회원국별 주력산업에 대한 협력시장 창출
  - RCEP 회원국들이 주로 중·후진국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입장이므로 현지 주력산업에 대한 개발정책과 표준을 만들어주는 ‘산업파트너링’을 제안하면서 산업단위의 협력과 진출전략 추진
- RCEP 역내 브랜드마케팅 지원
  - RCEP으로 창출되는 거대시장에 대비해 한국 중소기업들이 증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마케팅 적극 지원 필요
- 최대 수혜업종으로 전망되는 섬유산업 관련 전략적 대응책 마련
  - 베트남 섬유산업은 베트남 최대 수혜업종으로 지목되면서, 한국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미국 수출 증가에 전략적 사전 대응 필요
  -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하여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 베트남 내 한국섬유공단 조성 추진을 통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상생협력 체계 마련 및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 등이 필요

## 2015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5-001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1편 -	2015.1
15-002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2015.1
15-003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 전략	2015.1
15-004	주요국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 동향	2015.1
15-005	2015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1

###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5-001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 안내서	2015.1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5-001	2015년 이후 유럽 각국의 주요 제도 변화	2015.1
15-002	KOTRA Global Insight (2015년 권역별 진출전략)	2015.1
15-004	2014 KOTRA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5.1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5-001	201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1
15-002	2015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5.1
15-003	2015 주요 전략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5.1
15-004	2015 달라지는 FTA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2015.1
15-005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8차 수요포럼	2015.1

## 작 성 자

◆ 오클랜드 무역관	최종진
◆ 비엔티안 무역관	김찬호
◆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복덕규 차장
◆ 하노이 무역관	정상현 과장
◆ 싱가포르 무역관	신정호
◆ 자카르타 무역관	김은희 과장
◆ 오사카 무역관	조은진 과장
◆ 베이징 무역관	김성애
◆ 방콕 무역관	박현성 과장
◆ 멜버른 무역관	강지선
◆ 통상지원총괄팀	오유진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5-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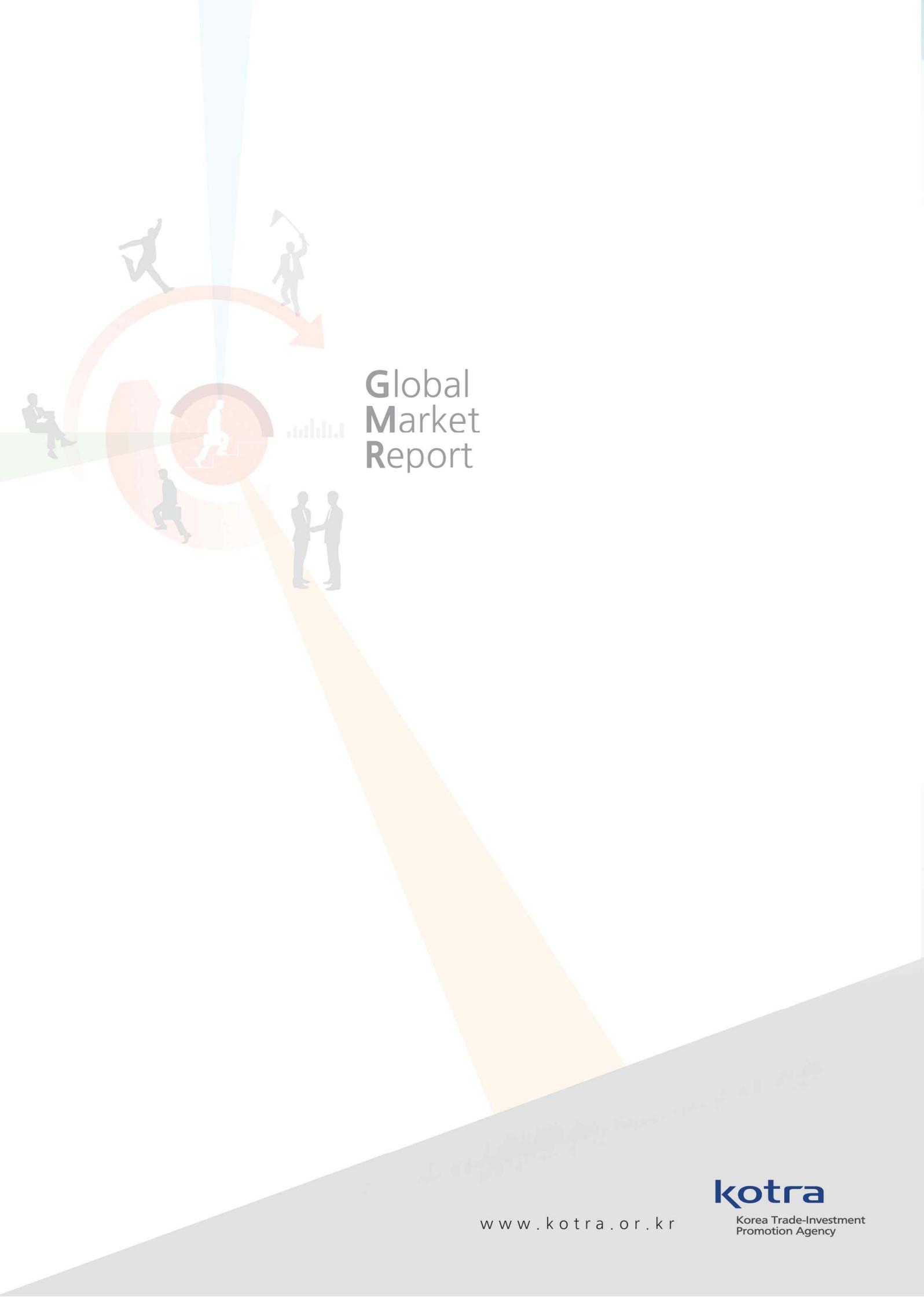
###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Global Market Report